

“내년 국비 5조2천억 확보”  
도 현안 예산반영에 주력

도는 내년도 국비 5조2,000억원 달성을 위해 200개에 달하는 현안사업비가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집중하고 있다.

현안사업은 122개 계속사업(1조7,157억원)과 신규 78개 사업(2,423억원) 등 총 1조9,580억원에 달한다.

도는 현안사업의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 여부가 국비 목표 달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실·국장 책임하에 기획재정부 심의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 마감시한인 9월 이전까지 국회 내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미반영 및 감액사업 위주로 대응논리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교통 인프라 신규사업은 강릉~제천 철도(10억원), 제천~삼척 고속도(10억원), 춘천~철원 고속도(10억원), 제2경춘국도(10억원) 등 5개 사업 45억원이다.

도 관계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를 대비한 신규성장 동력 발굴로 국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328억 규모 건설공사 입찰

이번 주 도내에서 328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입찰이 진행된다.

조달청의 7월 첫째 주 시설공사 내역에 따르면 도내 물량은 총 3건 332억원으로 집계됐다.

우선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수요의 국도 59호선 남면~정선 1구간 1차 도로건설공사가 발주된다. 이 공사의 추정가격은 328억6,800만원으로 이번 주 공사내역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또 한국노총 도지역본부의 한국노총 강원도회관 개·보수공사(2억3,200만원)와 강릉원주대의 강릉캠퍼스 내 마을도로 정비 전기공사(9,700만원)도 입찰이 이뤄진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 올림픽 경기장 가는 길 속속 개통

**【강릉】**2018평창동계올림픽 강릉빙상경기장 주변 진입도로가 속속 개통되고 있다.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본격 시작한 강릉빙상경기장 진입도로(강릉원주대~죽헌교차로) 확장공사가 지난달 30일 왕복 4차로로 전면 개통됐다.

강릉원주대~죽헌교차로 구

강릉빙상경기장 진입로

올림픽파크 연결도로 등

각각 지난 달 30일 준공

간은 유천택지에 조성 중인 올림픽선수촌 및 미디어촌과 올림픽 경기장을 연결하는 주요

노선이다.

총길이 1.54km,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교량 3곳, 통로박스 4곳 등 구조물이 많은 공사였으나 당초 예정보다 4개월 앞당겨 준공됐다.

이와 함께 동계올림픽 지정 병원인 동인병원에서 올림픽 파크를 잇는 연결도로와 이 노

선에서 연당길로 이어지는 구간도 각각 지난달 30일 개통됐다.

이 도로는 동계올림픽 관계 시설 도로망 확충은 물론 강릉 시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로로서의 큰 역할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심병섭 시 도로과장은 “도로

우회, 통제 등에 대한 많은 불편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격려 덕분에 아무런 사고 없이 조기 개통이 이뤄질 수 있었다”며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익기기자 igjung@kwnew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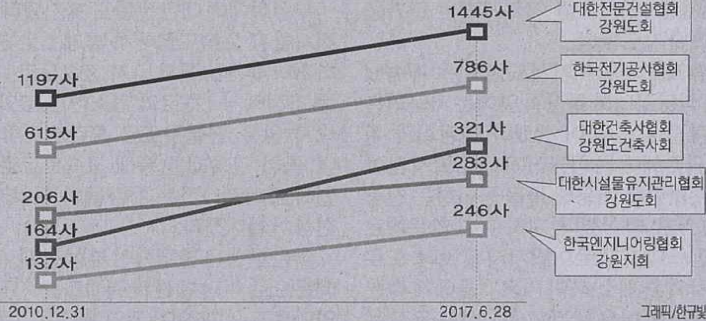
# 건설사 내년부터 '수주 빙하기' 오나

화력발전소 재검토·주택시장 위축  
동계올림픽 공사도 마무리 단계  
"민·관 공사 내년 기점 감소 전망"

평창동계올림픽과 서울~강릉고속철도,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대형호재를 앞두고 강원도내 건설사들이 크게 증가했지만 향후 물량감소로 도내 건설업체들이 '수주빙하기'를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후 고속도로와 철도 등 대규모 사업간접자본(SOC) 확충 공사와 부동산경기 호황으로 도내 건설관련 업체들이 크게 증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의 경우 회원업체가 2010년 1197곳에서 올해 6월28일 기준 1445곳으로 6년여만에 20.7%(248곳) 늘었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강원도회도 회원수가 2010년 164곳에서 지난 6월 321곳으로 무려 95.7%(157곳)나 급증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강원지회

강원주요 건설단체 회원사 추이



79.6%, 대한건축사협회 도건축사회 37.3%, 한국전기공사협회 도회 27.8% 등 6년동안 회원수가 급격히 늘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토목 등 비거주용 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업체들이 위기에 봉착할 전망이다. 춘천 레고랜드와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등 주요 공사가 예정돼 있지만 평창동계올림픽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대규모 SOC 공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최근 정부가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강릉 안인화력발전소와 삼척화력발전소 건설도 진행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도내 건설투자를 이끌던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박종필 한국은행 강원본부 과장은 "민간과 관공사 모두 내년을 기점으로 줄어들 전망"이라며 "동계올림픽 등으로 급격히 늘었던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해 부도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관호

## 강원도 사회간접자본 여전히 미흡

-동서고속철 포함 춘천~철원고속도로 등 신규 SOC 확충 이어져야

동서고속철 사업 관철 과정에서 국회의 뒷받침을 이끌어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신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 개통식은 전연 없이 화기에애한 분위기였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전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로·철도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적인 교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민은 동서고속철도를 포함한 지역의 신규 사회간접자본재(SOC) 확충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대목에 특히 주목한다.

주체들의 간고한 노력으로 동서고속도로 건설은 이렇게 완결을 보았다. 물론 연계 교통망 보완과 통행료 인하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아니 남아 있지만, 일단 스마트한 한반도 횡단 고속도로가 강원도 허리를 지나가며 위용을 드러낸 것이다. 이제 다시 문제는 사회간접자본재 구축에 있어 남은 과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하나가 해결되면 그로 다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 거리가 그야말로 간단없이 다가드는 것이 인간사가 아니던가.

그리하여 살펴보면 강원도 사회간접자본재, 특히 교통망에 있어 접근해야 할 주제가 하나들이 아님을 다시 확

인하게 된다. 이미 착공을 확정해 놓은 서울~양양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의 조기 실행을 비롯하여 동해선 철도 복원,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삼척~강원도 경계 구간, 평택~삼척 고속도로 중 제천~삼척 구간이 그것이다. 개통식에서 최문순 지사는 특히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이 통일·북방시대를 맞는 주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실 강원 지역 사회간접자본재 구축은 환동해·북방 대응, 유라시아 연결 등이 시대 역사적 당위요 명분임이 늘 전제된다.

그럼에도 역대 정부는 강원도의 전혀 달라진 의미와 가치를 애써 외면하려 했다. 이것이 문제였는데, 이제 강원도에 관해 상대적으로 다른 이해를 갖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심 및 그에 따른 구체적 언급이 있었으므로 향후 도 SOC 사업에 그야말로 새로운 전망을 기대할 만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사업의 완결로 다가 아니다. 추후 계속 사업의 간단없는 진행에 이어 신규 사업이 이어져야 강원도 인프라의 전근대성 극복의 날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도 당국과 정치권의 지속적 관심이 필수다. 사회간접자본재 구축에 있어 강원도는 그야말로 여전히 배가고프지 아니한가.

유주현 건협 회장, 방미 경제인단으로 민간외교 역할 특출

“국내기업 美 인프라시장 진출 적극 지원”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사진)이 우리 기업의 미국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한 민간외교 사절단 역할을 특출히 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27~30일(이하 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경제인단으로 동행한 유 회장이 ‘한·미 비즈니스 서밋’과 ‘우리 경제인과의 차(차)담회’ 등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지난 28일에는 ‘우리 경제인과의 차담회’에 참석해 현지 교민과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또 이날 저녁에는 한·미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미국 건설기업들과 교류하며 현지 시장 분위기를 익혔다.

29일에는 ‘건설관련 전문가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우리 기업의 활동 동향과 함께 현재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아울러 미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건설기업의 동향과 시장 현황

을 파악하고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30일에는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을 찾아 한국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실적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다양한 기업들을 만났다.

특히 코트라 측과 향후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세미나 개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30일 오후에는 건설유관기관 워싱턴 주재관 간담회에 참석해 현지기업의 진출 현황과 현지 관계자의 고충 등을 듣고 격려했다.

유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추진 중인 만큼 이번 방미를 계기로 우리 건설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력 재계 인사들로 구성된 52명의 문 대통령 방미 경제인단은 향후 5년간 128억달러(한화 약 14조6000억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김태형기자 kth@

오인철 건협 강원도회장,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참여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사진 왼쪽 두 번째)은 지난 30일 최문순 강원도지사(오른쪽 두 번째)와 도내 경제 관련 유관기관 등과 인제 원통시장에서 진행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석했다. 한편 건협 강원도회는 이날 인제지역협의회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도회 임시총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

아하! 그렇구나

공동수급체와 보증보험사에 대한 구상관계

Q 건설회사인 A사와 B사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았는데, 당시 그 공사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은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의정하였다. C사는 B사가 이 도급계약에 따라 발주자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의 무에 관하여 B사 출자비율인 54%에 따른 공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발주자는 공사 완공 이후 B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B사가 경영악화 등으로 이행하지 못하자 A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한편 C사에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A사가 하자보수를 완료하였는데 A사가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A 이 사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보증보험회사에서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을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한 상황에서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하자보수를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실현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하는 문제이다.

사례와 같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은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고, 본 사례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인 A, B사는 연대하여 발주자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연대책임은 도급계약서에 도기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례와 같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출자비율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B사가 그 이행기간 내에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때 보험사고와 이에 근거한 발주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C사는 발주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연대책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 A사가 그 하자보수를 실행하여 B사의 채무가 소멸한 경우, A사는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자신과 연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는 B사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보증보험은 형식적으로는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또한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채권자의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건과 같은 보험이 있는 경우에 그 보험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도 포함된다. 따라서 민책행위를 한 A사는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B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자인 발주자의 담보에 관한 권리인 하자보수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B사가 발주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발주자의 C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였고, 연대책무자인 A사가 발주자에게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함으로써 B사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하자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가지고 있던 C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A사가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다25432).

곽동우  
법무법인  
허우 변호사



## 5월 건설수주 11.9兆… 27% ‘뚝’

### 건설기성도 두달연속 내리막

5월 건설수주와 기성이 급감했다. 건설투자 위축과 더불어 미세먼지 악재 등의 여파로 생산과 소비지표가 하락하면서 최근 이어오던 경기회복세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건설수주(경상, 계절조정)는 11조9430억원으로, 지난 4월 대비 27.2%(4조4510억원)나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7.4% 증가했지만 증가율만 보면 지난 4월(33.9%)의 반토막 수준이다.

건설기성(불변)도 3개월 만에 다시 10조원 선에서 밀려나 두달 연속 하락했다. 5월 건설기성은 9조9760억원으로 전월 대비 1.6% 감소했다. 토목공사 실적이 전월 대비 4.4% 증가했지만 건축이 3.7% 감소했기 때문이다. 건설기성은 앞서 4월에도 전월 대비 4.3% 감소한 바 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5.2% 증가했지만 전년도 대비 월별 증가율은 최근 계속해서 하락세다. 지난 2월 22.6%에서 3월 18.1%로 줄었고 4월 19.1%로 반등했으나 5월 다시 15.2%까지 내려왔다.

통계청 관계자는 “5월 건설수주 및 기성의 감소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던 4월에 이은 기저효과와 더불어 5월 초 환

금연휴 및 대선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서고 부동산 및 가계부채 대책 등이 이어지면서 건설투자는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건설투자 위축과 더불어 5월에는 전반적인 경기회복세에도 제동이 걸렸다.

5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 산업생산은 2월에 전월 대비 0.3% 줄었다가 3월 1.3% 증가로 반등했지만, 4월 1.0% 감소한 뒤 2개월째 감소 행진을 이어갔다. 5월에는 광공업(0.2%)을 제외하고 서비스업 및 건설업, 공공행정 등 대부분의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도 전월보다 0.9% 감소했다. 올해 1월(-2.1%)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황금연휴로 소비활성화를 기대했지만 미세먼지가 불어닥치면서 야외활동이 줄고 쇼핑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통계청은 경기회복세가 꺾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122.3이었고,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117.5로 역대 최고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5월에 조정을 받았다.   
봉승권기자 skbong@